

올해 '을지연습' 잠정 유예

행안부·국방부 합동 브리핑
 “안보정세 등에 따라”
 내년 을지태극연습, 태극연계 민·관·군 참여 테러·대규모 재난 포함 포괄적 안보개념 적용

올해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계획된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간 비핵화 조치 등 최근 조성된 안보정세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을 재개할 경우 한미 방어 태세 유지가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을지연습도 바로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UFG는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다. 을지연습은 전쟁상황에 대비한 연습이다. 군사연습과 연계가 되지 않는 정부훈련은 효과가 떨어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태극연습하고 합쳐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1968년 무장공비점투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매년 1회씩 각급 행정기관 상호연계하에 훈련이 진행된다. 1976년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통합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통합됐다. 2008년에 현재의 UFG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행정기관이 상호연계,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 매년 총무계획이 수립된다.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을지훈련을 유예하더라도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8월 중 정부 각 부처의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시 상황 전파체계 점검을 위한 '자체 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 비상대비 종합훈련인 총무훈련(10월)과



“7월 11일은 전북 인구의 날”
 연스를 하고 있다.

2018 제7회 전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관계자들이 퍼포

민방위 훈련(년 4회) 등 계획된 각종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을지태극연습'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적용한 훈련이다. 향후 전작전 환수에 대비한 자주적인 민·관·군 작전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포괄안보 상황에 따른 훈련에는 기존 군사상황과 연계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훈련 등 기본적인 전시전환 절차와 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각종 상황조치 훈련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와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

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태극연습 후반기 시행 10월말 계획된 호국훈련 연계

국방부는 지난달에 계획했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태극연습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주도하에 전구(戰區)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전력과 부대구조발전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 연습(CPX)이다. 매년 5~6월에 실시됐다. 올해 처음으로 연기됐다.

올해 연습은 10월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된다.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의 경우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했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항상 전시 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프리덤가디언과 2차례 계획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FP·케이맵)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프리덤가디언과 2개의 KMFP 훈련이 올해 유예된 것"이라며 "내년에도 유예되는지 여부는 논의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며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북한의)비핵화 진행을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법안 처리에 2분도 안 걸려… 토론도 생략”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1개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평균 1분34초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2차연도(지난해 5월29일~올해 5월29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

략 평가한 결과 총 875개 법안을 22시간51분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표결 시 대부분 찬반 토론도 생략한 채 877개 법안 중 8건(0.91%)만 토론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66.49%로 출석률(88.19%)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정 부질문 산회 때는 의원 참석률이 26.28%에 불과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가 '상임위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국가적, 국민적 법률안들을 핼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최상의 전력서비스 고객감동 실현”

정은호 한전 전북본부장

정은호(58)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장이 9일 부임했다.

〈본보 7월 10일자 2면〉

정은호 전북지역본부장은 “내부직원 만족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고의 전력서비스를 전북도민에게 제공하고 고객감동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전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 전력수급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지역의 차질 없는 개발과 전력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에너지산업 확산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뢰와 사랑받는 한전’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기



반으로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며, “화합과 소통을 위해 본부장실은 직원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진실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호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장, 본사 경제경영연구원장,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한전 내에서 탁월한 업무추진력은 물론 직원을 먼저 배려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함께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다. /김병태 기자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기 전북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일진복합소재 · 세명테크 · 다인스 · 새논 · 지엠에프 등 미국시장 진출 ‘올해 글로벌 우수기업’ 선정 지정서 수여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도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우수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텍사스주립대(IC*연구소)와 연계한 미국시장 기회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우수기업선정은 2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 먼저 1차로 텍사스주립대학교와 KAIST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글로벌 유망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미국시장기회분석보고서를 제공, 2회에 걸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2차 기업별 발표평가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미국(동남아)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2018 글로벌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 올해 선정된 5개사는 ▲일진복합소재(주) ▲(주)세명테크 ▲(주)다인스 ▲(주)새논 ▲(주)지엠에프이다.

2013년 8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6년차인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총 45개사에게 미국 시장보고서를 제공하였고, 24개사의 해외 현지마케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외매출 약512만불(50억원 상당), 신규고용 15명 등의 직접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글로벌 우수기업의 해외마케팅 경험이 수출 증가로 이어져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술력을 갖춘 지역 내 글로벌 우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성공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시 공고 제 2018-1142 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청취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18년 7월 9일 ~ 2018년 7월 23일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원시 관광과
-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 나.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 다. 면적: 795,133㎡
 - 라.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마. 사업시행 예정자: 신한에너지주식회사
- 공람공고 내용
 - 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 나.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 관련도서 실용생략: 남원시 관광과에 비치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는 남원시청 관광과(☎063-620-6177)에 비치 및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인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9. 남원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